



코로나19 극복과 불교종흥을 발원하며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 약사어래부처님 앞에서 순례에 오른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10월27일 서울 봉은사 마립부처님 앞에서 회향법회를 갖고 한국불교 종흥을 위한 길에 함께할 것을 발원했다. 김형주 기자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 40주년을 맞아 법난의 아픔과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중이 10월27일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타종했다. 사진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열린 10·27법난 40주년 추념식. 신재호 기자

## “만행결사 원만성취... 불교종흥 힘찬 출발”

불국정토 서원 자비순례 대구-서울 511km 대장정 천막결사 상월선원 거처 봉은사 마립전서 ‘회향식’

코로나 극복과 불교종흥을 발원하며 팔공총림 동화사 약사어래부처님 앞에서 순례에 오른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서울 봉은사 마립부처님 앞에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미래 불교를 발원하며 21일간의 511km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10월27일, 경내 마립전 앞에서 회향법회를 갖고 부처님 전에 자비순례 원만성취를 고하고, 한국불교 종흥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회향일임에도 순례는 멈추지 않았다. 이날 일정은 봉은사에서 천막결사 정진이 서린 위례 상월선원까지 왕복. 경내에 친 텐트에서 하루밤을 보낸 순례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전3시에 일어나 행렬을 정비하고 상월선원을 향해 발걸음을 땀다. 봉은사에서 위례 상월선원까지는 약 13km. 입제 때부

터 하루 평균 20~30km 강행군을 펼쳐왔기 때문에, 순례단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힘찼다. 오전 6시30분, 지난 겨울 아홉 스님이 목숨 걸고 정진했던 현장에 도착했다. 결사대중들은 상월선원 원만 불사를 기원하는 스님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불교를 꿈꾸며 두 손 모으고 기도했다. 순례단은 다시 두 시간 반을 걸어 봉은사 마립부처님 앞에 섰다. 이 자리에서 이번 순례 원력으로 한국불교 종흥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김경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회향발원문을 통해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사부대중 모두가 걸으며 길 위에서 먹고, 길 위에서 자며,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가까이 다가서는 보살행원을 이루고자 했다”며 “동참 대중 모두는 이 나라 아름다운 가을을 지나오며 불국토가 지금 여기에 있기를 발원했다. 이 원력과 신심이 널리 퍼지고 이어져 한국불교 종흥의 힘찬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엮드려 절한다”고 밝혔다.

사부대중이 평등하게 먹고 자고 걸으며 국난극복과 불교종흥을 발원한 이번 자비순례는 천막결사에 이어 전례 없는 결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팔공총림 동화사를 시작으로 대구 달성, 철곡, 구미, 상주, 문경을 지나 순례 11일째 되는 날 이화령을 넘어 충북 괴산에 도착했다. 이어 충주를 거쳐 경기도 여주, 양평, 남양주 순례를 마치고 20일째인 10월26일 봉은사에 입성했다. 안으로는 불교종흥을, 밖으로는 모든 생명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발원하며 장장 511km를 씹었기 걸었다. 방역에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순례 중 목단, 공양 전 발열체크와 손소독제 사용, 1인1텐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순례길을 만들어 갔다. 한편 자비순례단은 지난해 아홉 스님이 결제에 들어간 지 1년이 되는 날인, 11월11일 한자리에 모여 만행결사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관련기사 4·5면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 10·27법난 40주년, 추념의 종 울리다

종단사상 첫 희생자 천도제 2024년 봉은사에 기념관 기공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 40주년을 맞아 10월27일 전국의 사찰에서 추념의 종 울리다 울려 퍼졌다. 이날 교편 침탈의 현장이기도 한 총본산 조계사에서서는 타종과 함께 법난 당시 불법적인 연행과 고문으로 희생된 스님과 불자 38명의 영가를 위무하는 천도제가 종단 사상 처음으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특별전시회와 40주년 추념식이 열렸다. 천도제로부터 시작된 40주년 추념행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 생존자가 58명에 불과하다. 평균 연령이 77세로 먼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불교계의 명예회복 노력을 저지않은 결실을 이뤄냈다.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요구해 정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진상조사와 사과를 받아냈다. 그러나 명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아니다. 여전히 법난기념관과 피해자치유센터 건립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40주년 추념식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10·27법난의 진실을 밝히는데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법난 피해 생존자들이, 불교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실 규명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난기념관 건립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서울 봉은사로 부지를 확정, 제반 문제를 해결해 2024년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종단은 사부대중의 큰 원력을 모아 추념사업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도 10·27법난을 추념한다는 대의를 중시하여 사업 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금곡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3만여 명의 군경이 법당을 군홧발로 유린하고 스님과 신도들을 강제로 연행해 엄청난 고문과 조작이 뒤따랐다”며 “한국불교는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스님들은 부패

한 경제사범으로 매도당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불자와 국민들이 불교에 등을 돌렸다”고 법난의 상처를 짚었다. 또한 “이런 모든 것이 국가권력의 남용이었음을 국가가 인정하기까지 무려 27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며 “이제 정부가 한국 불교의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단은 10·27법난을 상징하는 심벌을 처음 공개했다. 10·27이라는 법난 날짜와 연꽃 한송이를 형상화한 심벌은 아픔과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자비와 상생, 평화의 에너지로 회향하는 의미를 담았다. 10·27법난 관련 홍보물과 문건, 기념관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총무원장 원행스님, 27일故 이건희 삼성 회장 조문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 회장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10월27일 이 건희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날 ‘10·27법난 40주년 추념식’ 참석 등 바쁜 일정 가운데 빈소에 방문한 총무원장 스님은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문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스님, 기획실장 삼성스님 등이 함께했다. 한편 27년간 삼성그룹을 이끌며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 건희 회장은 10월25일 향년 78세 일기로 별세했다. 이성진 기자 sj0478@ibulgyo.com

동은스님의 **지금 행복하기**

### “머니 중 제일은 석가머니”

시내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신도가 몇 분의 지인과 같이 오셨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 로또복권 사서 기도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셨

다. “스님, 돈 잘 버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보살님이 심각하게 물었다. “네,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리지요.” 순간 보살님의 눈이 반짝였다. “머니머니 해도머니가운데 제일은 석가머니죠.”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석가머니가 뭐예요?” “석가머니 부처님이지요.” “아이고 스님도 참, 농담은요. 근데 그게 왜 제일인데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장사를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요?” 보살님이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게으르지 말

고 부지런하며 정성을 다하여 손님을 맞이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일을 하되 결과는 인연도리에 맡기면 됩니다.” “그래도 장사가 안 되면요?”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애를 쓰도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셔야죠.” 법(法)자를 파지해 보면 ‘물(水)이 흘러가는(去)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순리다. 모든 법, 즉 진리는 이와 같은 법칙이 통한다. 부처

님의 말씀을 ‘법’이라 하고, 스님들의 가르침도 법문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안되면 무슨 뽀족한 수가 없나 하고 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이 원칙을 비껴나서 다른 방법이 없다. 인과의 도리인 것이다. 일전에 어른스님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다. 평소 법문을 잘 안하시는데 분이지만 그래도 신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 드렸다. “부처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바로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살

아가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 그 방법을 팔만대장경으로 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곰곰 생각하니 정말 그랬다. 요즘 소크라테스를 ‘데스형’이라 부르는 노래가 인기다. 아무리 생각해도머니중 제일은 석가머니인 것이 분명한데 혹시 부처님께서 당신을 ‘석가머니’라고 해서 “이눔!” 하진 않으실지 모르겠다. 삼척 천은사 주지

## 백발기도 기간에 목탁소리를 울리며 참회초 울립니다 제불보살님께 올리는 고운사 참회백발 기도정진

일제 1월31일(음 9월15일) ~ 화상 2021년 2월7일(음 12월26일)

자희들은 아제 교구사부대중의 뜻을 잘 받들어 교구 화해를 위해 정진 하겠습니까. 살수된 교구의 명예를 위해 전법과 수행정진에 매진하는 것이 종단과 사부대중을 위하는 길이라 여겨 조그의 노력으로 참회정진하겟 습니다. 조신스님과 여러대덕께서 참으로 이로운 교구의 여신에서도 그동안 노력하여 가부처들은 청정수행 사목의 신지와 교화전법의 길을 되살려 민본적인 고운사 교구사 타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하겟습니다. 고운 사장과 우리로써는 참회정진은 주신 사부대중들에게 기뻐하는 참회초 울립니다.

해동제일지상사도교장 등산 고운사 보사 주지 등은 한장

※ 고운사 대웅전에서 4시부터 21시까지 종일 기도염불정진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